

한국교육시설학회 제2회 학생공모전 심사 후기: 다른 공모전과 무엇이 차별화 되어야 하나?

Review of the Architecture Competi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김혜정 / 정회원,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Kim, Hye-Jung / Professor, Myongji University
hjkim@mju.ac.kr

작년 처음 실시한 공모전에 이어 올해 2회째 공모전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1회와 2회 출품된 작품들의 성향을 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라 생각된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생활에서 숨겨져 왔던 학생들의 심각한 애로점들이 노출되면서 교육시설의 공간환경적 정서성과 건강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교육환경에 대한 건축적인 개선과 대안을 건축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해 왔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을 마음 무겁게 안은 채 우리 학생들의 공모전 주제와 대안을 떠올려 보게 된다.

올해 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돌아보니 교육시설학회 공모전은 다른 공모전과는 무엇이 차별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공모전의 사회적인 영향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다양한 학생 공모전들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에 따라 그해의 주제 설정에 따른 공모전, 청소년시설에 집중한 공모전, 문화시설에 초점을 맞춘 공모전, 미래 주거환경에 대한 공모전, 공동주택, 친환경건축에 초점을 맞춘 공모전, 구조의 멋진 표현에 대한 공모전 등 다양하다. 교육시설에 초점을 둔 설계가 다른 공모전과 우선 차이가 나는 점은 자의이든, 타의이든 매우 오랫동안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집만큼이나 가깝고, 친숙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생활환경이라는 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멀어질 수 없는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설계가 어렵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설계는 새롭고, 멋있게 제안하기에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인들이 사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안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시설임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사회적 중요성, 역할, 소중함 등을 깊이 인식하고 사용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공모전 주제를 해석하는 것이 타 공모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이러한 생각들이 담긴 작품들이 높이 평가받을수록 공모전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올해의 공모전 출품작들에 대해 리뷰를 해보면, 무엇보다도 작년에 비해 크게 변화한 점은 작품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는 점과 학교 공간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작품들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발전으로 생각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 학교 내 공용공간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도시 맥락을 고려한 교육시설의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제출된 작품들의 대다수는 현재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의 생활, 학생들을 위해 제안해주고 싶은 건축 공간적 환경, 마음과 교류하는 공간의 모습,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에 대한 깊은 이해는 간과하고 형태적으로 멋있거나, 학교 부지의 층격적인 선택, 대안학교, 폐교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움을 시도하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화려하게 시각적으로 설득하는 작품보다는 보다 애정이 담기고, 자신들이 경험한 학교공간들에 대한 미래 개선에 대한 참신한 제안 등 교육프로그램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학교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작

품들이 앞으로 주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학교공간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야 하는 기본 생활공간이며, 문화시설이나, 기타의 공공시설처럼 특별한 날에 특별하게 사용하는 대상이 아닌 일상의 보통 건축이기 때문이다.

교육시설학회의 공모전이 앞으로 해를 거듭하면, 그해의 당선작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 학교시설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발전적인 교육환경으로 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들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건축학과 학생들의 작품이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채택이 되고 실현가능한 안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안들이 보다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 더 욕심을 내어 보면 기성건축가들이 학교설계 작업을 할 때, 교육시설학회 공모전 작품집을 찾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학생들이 제안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건축적 해답들을 현실에 차용해 보고 싶은 작품들이 많이 담겨있어, 우리나라 교육시설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모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학교의 건축 환경적 제안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근원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보다 기본에 충실한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교육을 담는 건축공간에 대해 고민한 작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다른 학생공모전과 차별화되기를 희망해 본다.